

(붙임 1)

홍보물

2025 덕수궁 특별전

국가유산청 공릉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대한제국 황궁에 선 양관 洋館

Western Architecture
in the Korean Empire's Palace

만나고, 간직하다
Receive, Treasure



2025. 4. 22. TUE

7. 13. SUN

< 포스터 >

(붙임 2)

사 진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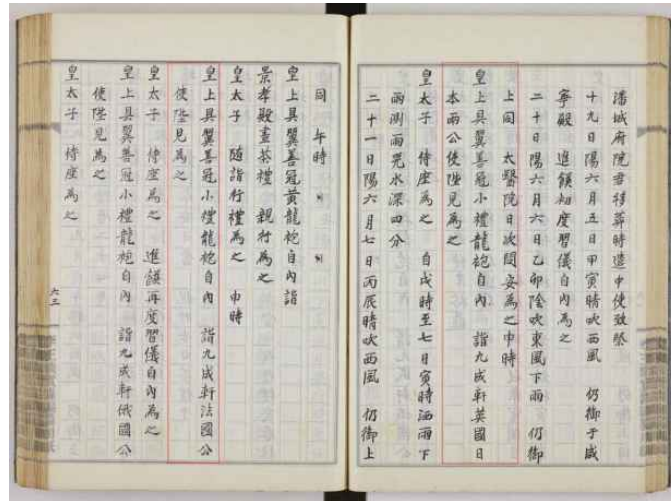
석조전 철골콘크리트 구조

석조전의 바닥구조는 덕수궁 내 다른 서양식 건축물이 목재 구조인 것과 달리 철골콘크리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I형 철골빔 사이에 아치형 금속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철망을 깔아 콘크리트로 마감한 형태이다.



정관현에 보관된 국새와 어보(좌: 대군주보, 우: 영친왕 황태자 책봉 금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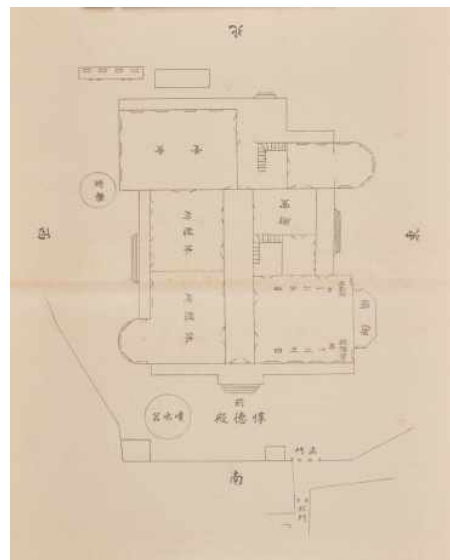
1909년 북한산 행궁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정관현으로 옮겨 두었다가 이듬해 4월에 창덕궁 봉모당으로 옮겼는데, 당시 정관현에는 총 44건의 국새와 어보, 옥책 등이 보관되었다.



공사청일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공사청에서 고종의 각종 행사와 관련된 기록을 정리한 것을 이왕직에서 실록 제작을 위해 필사한 것이다. 1901년 4월에서 1902년 1월까지의 기록을 통해 구성헌에서 열린 폐현례의 폐현 대상과 황태자의 참석 여부, 고종의 옷차림 등을 알 수 있다. 폐현 당시 고종은 익선관에 황룡포를 주로 입었으며, 그 외에도 갓에 답호(반소매거나 소매가 없는 긴 덧옷) 차림을 하기도 했다.



대황제폐하즉위예식의주(좌: 표지, 우: 돈덕전 배치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소장

돈덕전에서 행해진 순종 즉위예식 절차와 돈덕전 평면도가 실려있다. 즉위식은 전통 예식과 서양 예식이 공존했는데, 전통 예식에는 순종이 면복(국왕이 제례 때 입는 관복)을 입고 신하들에게 국궁사배를 받았으며, 서양 예식에서는 대원수복으로 갈아입고 애국가 등이 연주되었다.



현장 연출 '정관헌, 벽을 세우다'

국가기록원 『덕수궁원안』 속 정관헌 평면도와 국사편찬위원회 사진을 바탕으로 정관헌이 변경되기 이전 모습을 연출하였다.



변형되기 이전 정관헌



1902년 무렵 덕수궁 전경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1902년 덕수궁 남쪽에서 촬영된 덕수궁이다. 왼쪽부터 중명전, 망대, 돈덕전, 구성헌 등 양관이 들어서 있다.